

산, 가족, 집 앞 고양이, 왜 그리냐고 묻는다면... 그냥

February 22, 2022 | 김정화 기자

Page 1 of 1

산, 가족, 집 앞 고양이, 왜 그리냐고 묻는다면... 그냥

문성식 작가 개인전 '라이프'

'별 볼 일 없는' 일상의 힘 전달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에 집중

작가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그냥'이었다. 그냥 산이고, 그냥 가족의 모습이다. 이젠 그냥 나무고, 집 앞의 고양이이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세 번째 개인전 '라이프(Life)'를 열고 있는 문성식(사진) 작가가 그랬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제목 그대로 삶, 일상의 힘을



겨울나무

전한다. 1980년생인 문 작가는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최연소로 참여하며 일찌감치 주목 받았다. 하지만 '스타 작가'라는 이 경력은 오히려 부담이 됐다. 최근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 '헬게이트'

(지옥문)가 열렸다"며 "준비가 덜 됐는데 관심은 많고, 부담이 너무 컸다"고 돌아봤다. 어지간한 그림은 스스로 견디지 못했고, 계속재고 뜯을 들이니 작품이 안 나왔다.

그게 바뀐 건 최근 2~3년 사이이다. 부산 달맞이 고개에 집을 얻어 지내며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 애쓰지 말자'고 다짐"했더니 세상이 달리 보였다. 아름답워서, 짝짝해서, 의미심장해서. 산책하는 동네, 벽돌집 앞에서 작별 키스하는 연인들,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 경북 김천 고양이집의 나무, 정원에 물 주는 가족의 모습, 모과 나무, 나리꽃, 매화, 배나무... 작가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전시에선 유화 드로잉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을 선보인다. 시포처럼 거칠거칠하게 만든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두껍게 바르고, 살짝 건조한 뒤 그 위를 연필로 긁어 표면 아래 물감 자국이 드러나게 한다. 대학 시절부터 연필을 적극 활용해 온 그는 "긁는다는 건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한 행위"라며 "가색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이자 방식이다. 어떤 장식

도 없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고 설명했다. 꾸밈없는 그의 성격과도 닮았다.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먹지 않기"다. 있는 그대로, 생김 대로 자연스레 표현하고 싶단다.

참고로 전시가 열리는 곳은 부산의 복합문화공간인 F1963.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공장으로 1963년부터 45년 동안 와이어를 생산한 곳이다. 어찌면 가장 지켜온, 일상의 일을 이어 가던 곳에서 그 소중함을 찾게 되는 전시라 더 의미가 깊다. 결국 오늘의 작은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된다는 진리를 깨우쳐 준다. 오는 28일까지. 부산 김정화 기자



부산 김정화 기자